강기정 "광주군공항 이전 할 곳에 공항공사 유치"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략 발표

한전 연계·혁신도시 이전 등 3원칙
"전남과 추진단 구성… 공동노력"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지역 국회의원 등이 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 공공기관 유치 시즌2 추진 전략회의'에서 공공기관 유치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강기정 광주시장이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 회의에 참석, 세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한국공항공사·한전 인재개발원·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전략적 유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광주 군공항을 무안공항 등 군공항 이전 지역과 통합시켜 그 곳에 한국공항공사를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공공기관 유치 시즌2 추진 전략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움직임 및 임차기관 연내 이전 착수 방침에 발맞춰 지자체와 국회가 긴밀하게 대응하고, 청년일자리 악화와 지방대학 소멸 위기에 따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강은미·송갑석·양향자·윤영덕·이용빈·이형석·조오섭·신정훈 국회의원, 임미란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이디도 산업통상자원부 전략산업정책과 서기관, 백수현 한국전력공사 상생생태계조성처장, 광주시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과 배일권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의 큰 원칙으로 △1차 이전 기관인 한전과 연계된 이전 원칙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키우는 이전 원칙 △인재양성 사다리를 완성시키는 이전 원칙 등을 강조했다.

먼저 광주시는 1차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 산업과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한전 인재개발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에너지 및 인공지능(AI) 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유치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한국전력의 부속기관인 한전인재개발원은 본사 및 계열사와의 상승효과가 예상되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인공지능(AI)과 연계된 데이터를 다루는 국내 최고의 전문기관이다.

이를위해 전남도와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공동혁신도시 조성을 통해 한국전력공사 유치에 성공했듯이 이번에도 광주·전남이 힘을 모아 파급력 높은 기관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군공항 이전과 연계한 한국공항공사 유치 등 지역현안과 관련된 사항은 전남과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다.

지역인재 양성이 채용으로 이어지는 사다리 구축을 위해선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유치에 노력하고,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 및 기업이 참여하는 인재양성 협업체계 구축에 나선다. 광주시는 이날 나온 의견을 반영해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보완하고, 유치 희망 기관을 검토하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 발표 이후 본격적인 공동유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전남도에 실무추진단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우리는 노무현정부 때 한전을 비롯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개 기관을 유치했고, 혁신도시 건설이라는 이미 성공한 경험이 있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 관점을 견지하면서도 광주·전남의 미래를 위한 큰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유치 시즌2'의 4대 추진방향과 전략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전남도와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광주·전남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상지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임박…'

1면서 계속 이와함께 광주·전남 탈핵시민단체는 이날 일본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 12주년을 앞두고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에 적극 대응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노후 핵 발전소 즉각 폐쇄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 행동'은 후쿠시마 핵 사고 발생 12년을 이틀 앞둔 이날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회견문을 통해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핵 사고 재앙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후쿠시마 핵 발전소 내 핵 연료 파편 수백톤은 방사성 오염수, 핵폐기물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2월 후쿠시마현에서 잡힌 농어에서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1㎏ 당 85.5Bq(베크렐)이 검출되는 등 해양 생물 오염도 심각하다. 어민 피해가 극심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우리 정부 대응을 규탄했다. 이어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늑장 대응, 침묵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생명과 바다를 지킬 정부는 어디에 있느냐"면서 "정부 태도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과학적이고 검증 가능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분석이 확인될 때까지 방류 계획을 철회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내 핵 발전소도 수명을 연장하지 말고 하루빨리 폐쇄해야 한다고 했다.

단체는 회견 직후 후쿠시마 핵 발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오염수 방류가 해양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을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이젠 총선모드'… 여야 경쟁 본격화

국힘, 김기현 당 대표 중심 '결집'
천하람 선전에 호남 의석 기대감
민주 입지자 권리당원 모집 사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면서 여야 모두 '총선 모드'로 빠르게 전환될 전망이다.

9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후보가 과반 승리(52.93%)로 당 대표에 당선됐다. 최고위원에는 김재원·김병민·조수진·태영호 의원, 청년 최고위원엔 장예찬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로 선출된 당 지도부가 사실상 '친윤(석열)' 계로 재편되면서 윤 정부의 국정운영에 힘이 실릴 뿐 아니라 김 대표를 주축으로 한 친윤계가 총선에서도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사상 최고 투표율인 55.1%를 돌파한 만큼, 총선까지 상승 분위기를 이끌어 가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당 대표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천하람 후보가 보수정당의 호남 의석 탈환에 선봉장에 설 것이란 예측이다. 천 후보는 당대표 선거에서 14.98%(6만9122표)를 얻어 3위를 차지했다.

천 후보의 득표수는 비윤계의 반감을 대변한 만큼 '호남 대표성'을 띠고 총선에서도 선전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대선에서 역대 보수정당 후보 중 가장 많은 지역의 지지를 받아 '내년 총선 광주·전남 최소 1석 이상 확보' 전략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입지자들은 줄어드는 당 지지율을 의식하며 권리당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욱이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으로 당내 갈등마저 깊어지고 있어 총선 승리는 불가하고 '과반 의석'을 차지할지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 경선에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늦어도 오는 7월까지 당원 가입을 해야 한다. 입지자들은 여러 변수를 고려해 늦어도 6월 안에 권리당원 모집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소정당들도 발 빠르게 총선 채비를 마치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1월 광주를 찾아 '노동의 정의당' 재창당 성공을 약속하고 지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한 총선 도약 의지를 밝혔다.

진보당은 지난달 일찌감치 광주·전남 총선 후보를 확정·발표하면서 본선 대비에 돌입한 상태다. 김해나 기자

광고 문의 (062) 519·0710 직통 / (062) 519·0709 팩스

드론타임 DRONE TIME 고퀄리티(4K) / 저렴한 가격 드론 촬영·편집
드론타임 010-5681-8084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2차)
당 재단법인은 2023. 3. 6. 재단 이사회에서 관련법률(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정관 제41조에 따라 해산결의 및 청산인 선임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단법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사후활용주체(여수광양항만공사)에게 승계하기 위한 제반절차를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해산절차에 대해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공고게재 익일로부터 2개월 내에 민법 제89조에 따라 채권신고 및 이의를 제출하기 바라오며, 위 공고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채권액은 청산으로부터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재단법인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 1(덕충동)
대표청산인 강용주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 세 금 부도어음 돈 받아 드립니다 빌려준돈 투 자 금 약 정 금 임 대 료 구 상 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말하는 법 1%만 바꿔도 인생이 바뀝니다~!
성공을 부르는 직장인 스피치
멋지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아버지 스피치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며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각 분야별 강사 파견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062)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주재기자 모집
당사는 지역언론을 선도할 진취적이고 창의적 이상을 갖춘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지역 및 인원
지역 고흥, 담양, 보성
인원 각 1명
제출서류
■ 이력서(연락처 명기) ····· 1부
■ 주민등록등본 ····· 1부
■ 자기소개서 ····· 1부
접수마감 및 접수처
■ 접수마감 : 채용시 마감
■ 접 수 처 : 우편 접수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전남일보사 경영본부
이메일 접수 - recruit@jnilbo.com
■ 기타 사항은 ☎(062)510-0421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全南日報